

版과 刷, 이제 구별해 쓰자

이두영

출판협회 사무국장

드디어 출판통계의 세계에서 비상한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들어 처음 발표된 정월치 발행종수통계를 보면 초판은 1908종 밖에 발행되지 않았는데 비해 중판은 그보다 68종이나 더 많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범상한 일이 아닌 만큼 이것은 변란에 속한다. 변란은 후진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을 때에나 어울림직한 '드디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출판대국으로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작부터 예상되었던 일이었음을 강조하려는 데 뜻이 있다. 이런 결과는 중판에다 중쇄분의 출판량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것은 출판량을 집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版과 刷의 개념조차 명확하게 구별해서 쓸 줄 모르는 철저하지 못한 우리 출판계의 분별력과 그릇된 관행에 말미암은 것이다.

오식정정의 범위를 넘어 내용면에서 상당한 수정이나 보충이 이루어진 것을 '판'이라 하고, 동일한 지형 또는 원판을 그대로 되박아 낼 때는 '쇄'로 가려서 '제3판 제2쇄'라는 식으로 표기함이 옳다. 서양에서는 애초부터 edition과 printing impression을 엄격하게 구별해 오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판과 쇠가 전혀 다른 뜻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오직 우리만이 이를 구분할 줄 몰라 출판통계가 첫번째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꼴이 되고 말았다. 이를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실행하고 있는 출판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출판사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자료에까지는 아직 그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법이나 이번에 새로 공포된 도서관진흥법은 판과 쇠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에 큰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과 쇠의 혼동은 통계상의 출판량이 갖는 의미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출판사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를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판통계는 출판행위의 실상과 발전추이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적인 성장이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논리로 작용해온 동안 출판계도 어느새 통계의 마력에 이끌려 수량적 변영의 착각에 빠져버린 것 같다. 이제는 부풀리기식 양적 팽창의 결과로 눈금이 올라가는 통계표만 비교하면서 세계 8위의 출판대국이라고 자랑하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조적으로 허약한 출판계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판물의 동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판통계의 수집·집계방법을 발전시킬 단계가 되었다. 독일처럼 초·중판을 엄격하게 구별하거나 프랑스처럼 초판과 신판, 그리고 중쇄로 나누는 방법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초판만 집계하는 미국이나 일본식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쇄에 의한 발행부수나 실제의 판매부수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사에서의 원천적인 자료제공이 정확해야 한다. 판과 쇠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일은 정확한 출판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첫 걸음이며, 그것은 우리 출판의 후진성을 극복해가는 길이기도 하다.

판과 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갖자.

뉴스	2	출판협회 창립 44주년 기념식·외
초점	4	연구논저 목록해제 어디까지 와 있나 총목록 및 분야별 서지작업의 두 갈래
표지인물	6	삶의 숨결 질게 배인 한국고지도 집대성 고산자 김정호의 생애와 업적
리뷰	8	광고홍수 시대의 '광고도서' 출판 이론서와 실무지침서가 주류 이뤄
서평	10	투르베즈코이 「음운학원론」 — 김현권 황수기 「중국현대문학발전사」 — 이주호 11 이형구 「한국고대문학의 기원」 — 최몽룡 최기영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 조항래 12 한국분석철학회 「비트겐슈타인과...」 — 이봉재 표학길 외 「미국의 대외관계」 — 정용석 13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계급」 — 홍덕률 방여지 「뉴턴의 법칙...」 — 최대선 14 노동은 외 「민족음악론」 — 박종문 쟁아스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 서병훈
인터뷰	15	남북 고대사연구의 인식차이 비교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엮은 김정배교수
출판화제	16	한 작가 집중조명한 단행본 는다 잡지서도 다투어 기획특집
얼굴	17	웅진출판사 새 사장 백석기씨
화제의 책	18	몽고문화의 고고학적 순례기 마이달 외 지음 「몽고문화사」
화제의 인물	19	대를 이어 지켜가는 고도의 서점 강화 「백합사」 주인 금동수씨
이 책 그 사람	20	「기독교사전」 펴낸 한영제사장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 낸 한준석씨 21 「어린이의 바른 예절교실」 낸 차원재씨 「만다라」 낸 김용환교수
나의 첫저서	22	내 인생과 학문의 시원적 자서전 — 김열규 이제는 부끄럽기만 한 「한국문학과 민속연구」
저작권 뉴스	23	전자출판은 과연 저작권의 위기인가 기존 출판방식 의존한 저작권법 실효성에 의문
연재기획	24	독자의 눈으로 책임기 ① — 이중환 환경오염을 보는 바른 관점과 책임기
해외화제	26	미디어그룹 꿈 키우는 아세트산·외 — 이봉호
세계의 출판	28	'오두막'서 '슬럼가'로의 흑인이주사·외 30 독자서평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